

신경민·천하람 신당 창당 강한 자신감

(전 국회의원)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신경민 “창당 준비 작업 재개” · 천하람 “수많은 제3당 세력 중 불붙고 있는 것은 이낙연 신당과 개혁신당”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 혁신 토론회 참석

신경민 전 국회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광주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해 거대 양당 체제에서 비롯된 폐해를 지적하고 신당 창당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 의원과 천 위원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토론회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사진 왼쪽)과 신경민 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8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 토론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가 역풍으로 불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창당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저는 신당에서 어떠한 중요 역할을 맡지 않고 미래 젊은 세대에게 모든 일을 맡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했다. 또 현행 거대양당 중심 정치권에 대해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 고스란히 적용돼 내부적으로 이를 고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정치에 있고 또 다당제가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면서 신당을 통한 정치 쇄신

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천 위원장은 “수많은 제3당 세력이 있지만 그나마 불붙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과 이 전 대표의 신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쌓아온 정치적 궤적이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거대 여당의 문제와 새로운 선택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며 “양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잘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택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당 창당)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체성과 경쟁력을 꺾어

먹는 연대라면 할 생각이 없다. 연대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사니지가 동반해야 하며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대화의 문을 열고 논의해 나가겠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주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선명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재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정성배 조선대교수,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천위원장, 류한호 광주대 명예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뉴스

이낙연 전 총리, 11일 민주당 탈당 선언

국회서 기자회견... 신당 창당 2월 초까지 마무리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다. 비공개 원의 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전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주 중 탈당 선언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양당 독재 정치 구도에 절망한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어한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러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며 “희망을 만드는 첫 걸음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설 전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 총력”

민주 유성엽 예비후보 “무기한 연좌농성 도입 제안한다”

제22대 총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의 의석수는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북 의석 10석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에 따른 획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전북의 인구 175만대로 전체인구 대비 3.4%의 비율이며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10석으로 전체 의석수 대비 3.9% 비율”이라며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거나 농촌도시라는 점에서 사실상은 부족한 의석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와 보복성 새민금 예산삭감 등을 당하며 국제적 망신과 동네북 상태로



전락한 것이 바로 현재의 전북이고 전북정치가 가진 힘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성엽 예비후보는 “도민들과 손을 잡고 전북 10석을 지키기 위해 총력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현역의원은 물론 모든 예비후보들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는 자세로 모두 모여 국회에 천막이라도 치고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250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며 전북지역 의석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도 지역 내 모든 세력이 협력해 전북의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획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결정돼야 22대 총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미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한참 늦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혼선과 어려움을 큰 상황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지러운 총선전에 빠른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이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최형재 예비후보, 총선 출마 선언 4대 사명·지역발전 비전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8일 제22대 총선 전주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부의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전북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기본사회와 대동 세상의 비전으로 전북 발전의 큰 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또 “언제나 시대의 부름에 운명을 단져 담았고 탁월한 경험과 남다른 화합의 능력을 갖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다시 민주화하고 미래 신산업이 꽃피는 ‘새로 산업화’를 통해 전북의 활기찬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부의장은 국민과 도민으로부터 받은 4대 사명과 지역 부흥책을 공약했다. 4대 사명으로는 △삼국을 민국으로 복원 △기후 약당을 지구 영웅으로 변모 △서울중심공화국을 전북자치분권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만금 RE100 특화산업 조성 △세계 RE100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전력망 관련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 △새민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탄소중립 사회형 일자리와 복지정책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주시는 ‘100만 경제공동체 중핵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인근 지자체와 산업정책 통합추진 △지자체간 개발이익 공유 △물물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터미널 이전 △광역 BRT 도입 등을 공약했다.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형재 부의장은 임실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전북대 경제학과, 전북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전북대 초빙교수와 우석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 자문위원, 전북감동조정협의회 사무처장, 전주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노무현재단 전북공동대표, 민주당 이재명선대위 조직본부 상근본부장, 민주당 전주를 지역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남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8일, 2024년도 첫 임시회인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남원시 난민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전평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력을 기울이고,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를 행정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5분 발언 진행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준영 의원과 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먼저 손준영 의원은 K문화의 무형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 남원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열정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원농악경연대회를 대령기로 승격시켜 ‘남원전국농악대전’으로 명명하고 경연대회를 요청하고, 남원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에 역량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남원색에 맞는 대표 공연콘텐츠 개발을 요구했다. 이어 오동환 의원은 관내 지역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원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수의계약 참여 희망업체를 파악해 부실공사 및 정략 이익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업체 현황과 선정 과정을 내부계시판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공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윤석열 사단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 “尹,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사이비 정권 끝장낼 것” 총선 출마 시사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편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목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시엔 김

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인해 반려됐다.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이 연구위원이 곧 총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인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할 뜻이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총선 사퇴 시한은 오는 11일까지다. 다만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정해진 기간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스

‘해결을 넘어 새로운 변화의 씨앗’

민주 윤준병 의원, 4년 의정보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지난 6일 정읍시 예술회관과 7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양일에 걸쳐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사 윤준병 4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해결을 넘어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성과와 결실을 맺었는지 정읍·고창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의 21대 국회 4년간 의정활동 종합 보고 및 고창·정읍 현안사업 진행경과와 4년간의 예산확보 내역, 입법·정책 활동 성과 등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진무장·전북·국가의 미래 비전 담아’

민주 안호영 의원,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북 콘서트 성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의 8년간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완진무장의 지역과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담긴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북 콘서트 지난 6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북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지난 8년간 겪어 왔던 의정활동, 국가균형발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염재복 기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6일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날과 겹쳐 그 의미를 더했다. /완주=염재복 기자